



# 농특위, 농정의 방향을 현장에서 찾는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업인단체 ‘농민의길’ 간담회 개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8월 25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농특위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의길’ 소속 단체장과 실무책임자 13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새 정부의 농업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농특위 김호 위원장 주재로 국정과제(안)과 농특위의 역할에 대해 농업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였다.

참석자들은 ▲현장 농업인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실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신뢰 회복,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생산자-소비자 연계를 통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밥상 물가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농정은 농산물 수급보다 농민의 경영 안정에 맞춰져야 하고, 물가 상승의 다양한 원인을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소통의 자세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회장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김상기 회장은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친환경 농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농특위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였다.

농특위의 역할과 관련하여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이무진 부회장과 전국양파생산자협회 강선희 정책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특위가 거버넌스 조직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특위 김호 위원장은 “농업의 현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야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농민의길을 시작으로 여러 농림어업인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살기 좋은 농산어촌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농어업정책팀	책임자	팀 장	이은영 (02-6260-1251)
		담당자	연구관	이진석 (02-6260-1222)

